

# “수행 전통 살리며 사회발전 이끌어야”



◁쿠윙 교수

미국에서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하는 조지메이슨 대학 철학·종교학과 쿠윙 투 뉴엔(Cuong Tu Nguyen) 교수와 하버드 대학 언어·문학학과 로버트 지멜로(Robert Gimelo) 교수가 10월 16~17일 이틀간 열린 성철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 참석차 일시 입국했다. 쿠윙 교수는 베트남 출신으로 유연히 신라 원축 스님(613-666)의 《해심밀경소》를 읽고, 원축 스님의 위대성을 발견해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멜로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가운데에서도 중국 불교학 전문가로 최근에는 존재보살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서양에서 명상에 대한 관심과 불교신자, 불교 학전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중국 불교에 비해 한국 불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교를 전공한 두 교수에게서 한국 불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직접 경험한 후의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과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지멜로 교수

## 쿠윙·지멜로 교수가 말하는

### 한국불교의 ‘이미지’와 ‘충고’

▲동아시아 불교학 전공자로서 한국 불교에 대해 평소 어떤 느낌,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 쿠윙 교수 : 미국에서 한국인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한국 불교에 대해 상상한 적이 있다. 한국인 제자 가운데 기독교신자들은 매우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불교신자들은 자신이 불교신자임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아시아적 가치를 언급하는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한국 불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당시 한국의 종교인구 수치 변동 조사 결과에 기독교 신자는 증가하는 반면, 불교신자는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불교의 활약상이 적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며칠밖에 안되었지만, 이곳에서 직접 본 한국 불교의 모습은 상상과는 달랐다. 한국 불교는 활기차고, 발전하고 있었다. 실제로 불자들은 자신감에 차있었고 비구·비구니의 활발한 활동이 눈에 보였다. 이 같은 상상과 실제의 차이는 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미국에 돌아가면 잡지나 신문에 이번엔 느낀 점을 기고할 생각도 갖고 있다.

▲‘아시아 불교’하면 티베트·중국·일본을 떠올리는 서양에서 동아시아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게는 과연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멜로 교수 : 중국 불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 나는 한국 불교에서 ‘살아있는’ 불교의 전통을 찾을 수 있었다. 중국에는 사라진 전통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어져,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저널과 관련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날 돈오점수, 돈오

돈수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뤄졌다. 수천 년 전 사상에 대한 해석 논쟁이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상은 내게 ‘살아 숨쉬는’ 한국 불교를 보여주었다.

▲두 분 모두 한국 불교를 외부에서 볼 때와 실제로 접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이는 결국 한국 불교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한국 불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제적 대화의 장 마련 정체성 알리야

### 불교는 흔들리는 인간사회에 정신적 지주

- 지멜로 교수 : 국제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몇 년 전 대만에 갔을 때 대만 스님들과 한국 스님들이 각자의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각 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다.

▲향후 불교가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쿠윙 교수 : 불교는 분명 미래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며칠 전 유럽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기독교가 교회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일정한 틀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반면, 불교는

교리는 있으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불교를 유연히 접한 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교가 정신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사람들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인간관계, 흔들리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교신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따라 가능성의 크기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불자들의 역할에 따라 불교의 사회적 위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 불교가 현대사회의 문제에 개입,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쿠윙 교수 : 불교가 사회활동과 반드시 연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교의 사회활동이 불교를 알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의 경우만 봐도 불교를 모르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달라이 라마를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시에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 지멜로 교수 : 솔직히 말해, 서구 사회나 대만, 중국에서는 불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이 너무 강조되면 불교의 근본, 정수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님과 수행자가 스님과 수행자로 남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정도를 꿈꾼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도로 가꿔나가는 것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정도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 불교의 정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상(11)

### 불화인가 불상인가

술거는 황룡사 벽에 농송도를 그렸다. 어쩌나 사실적으로 그렸는지 까마귀, 소리개, 제비, 참새들이 멀리서 보고 날아들다가 앉을 곳이 없어 떨어졌다. 경덕왕 때에는 눈이 먼 최승현이란 여자가 불황사의 북쪽 벽의 천수관음상에서 빌어 마침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 사천왕사 벽화에 그려진 개는 술거의 농송도를 능가하는 사실성과 기적을 일으켰다. 918년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어 3월 동안 부경을 강설 풀이하여 이것을 물리쳤으나, 반나절도 안되어 또다시

유일한 회화이자 불화인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호암미술관 소장)를 연상케 한다.

이 육존불은 바위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얇은 선각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게 표현하였다. 앞에서 가까이 보면 바위의 울퉁불퉁한 면을 다듬지 않고 그 면을 따라 선각으로 새겼다. 선각이 오랜 세월의 풍상 속에 주름진 바위결과 더불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 언뜻 보면 바위 면을 편편하게 다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바위 면을 그대로 살린 것이다. 인공적인 것으로 억제하고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신라인들의 미의식이 여지없이 드러나 있다.



◁경주남산 삼릉계 육존불은 8세기말-9세기초 사찰벽화의 면모를 간직한 불상이다.

원쪽 바위에는 서 있는 불상을 중심으로 한 삼존이 배치되고, 오른쪽 뒤로 물러나 있는 바위에는 앉아 있는 불상을 중심으로 한 삼존이 배치되어 있어 대조를 이룬다. 서 있는 불상을 보면 몸에 착 달라붙은 옷에 U자형의 주름이 대담하게 흘러 내려오고, 좌

## 거친 바위표면에 선각한 삼릉계 육존불 회화적 성격 짙은 통일신라 가장 큰 佛畫

울었다. 8년 뒤 이 벽화의 개가 마당으로 쫓아 나왔다가 다시 벽 속으로 들어갔다. 이상의 벽화 이야기들은 <삼국유사>에 전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라시대의 벽화는 한 점도 전하지 않는다. 모두 전설 속에 파묻혀 신비로운 설화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불상이 있으니, 바로 경주남산 삼릉계 육존불이다. 이 육존불은 편평한 바위면에 선각으로 새겨서 조각으로 분류되지만, 회화의 면모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지필묵, 즉 붓으로 먹과 물감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보다 바위에 새긴 그림이 먼저 시작한 점을 생각하면, 이른 시기의 회화 형식을 따른 셈이다. 아울러 이 육존불은 굵기가 일정한 필선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점에서 신라시대의

의 보살상들은 한쪽 무릎은 꿇고 앉아 두 손에 연꽃을 받쳐 들고 불상을 향하여 공양하고 있다. 앉아 있는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을 연상케 하는 건장한 체구로 위엄을 갖추고 몸에 밀착된 옷을 입었다. 보살상들은 불상 좌우에 서서 불상 쪽을 향하고 있다. 보살상들은 웃옷을 벗은 채 목걸이와 팔찌 정도의 간단한 장신구와 천의를 걸친 모습이다. 간략한 선각의 표현으로 긴장감이 넘치고 탄력적인 행상을 표현한 점에서 통일신라 절정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경주남산 삼릉계육존불은 현재 남아 있는 통일신라의 가장 큰 불화라 할 만큼 회화적인 성격이 강한 불상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 정각향 창시 53주년 맛이 명품!

“알갱이로 만들어진 향 인기 돌풍은 단순한 향기를 넘어 생활속으로 오고 있다.”

### 스트레스 해소는 편백숲이 으뎀 정각향으로 출시 아파트를 숲속으로 정각향이 깨웁니다

- 방안이 지금 숲속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 집중력까지 생각한 향 알갱이입니다. 방안은 이제 집이 아닙니다. 숲속이다 정각향이 깨웁니다.
- 밖에 있어도 안에 있어도 모든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설레임, 정각향이 그 소중한 향을 찾아 드립니다.

### 이젠 몸도 머리도 더 맑게 챙기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 체험기

경북 팔공산 "기도스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몸에 피곤을 많이 느껴 쉬어야 할 때가 많은 것을 방안에 나누어 보았으나 변화가 없었는데 정각향을 구입하여 방안에 둔 후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훨씬 덜 하시다 하시면서 일부러 전화를 주셨다.

####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에 사시는 오모씨는 아들방에 두었더니 좋지 않은 냄새가 없어졌다며 알갱이 몇알씩을 들고 모임에 가서 자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조원 세계적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 www.Aromamall.org | 고객센터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 사용법

컴퓨터옆이나 침실에 두시고 도자기 투각 뚜껑에 알갱이를 1/3정도 넣어주십시오. 하루 1회 2~3알을 보충하시고 향기를 취향에 맞춰 양을 조절하십시오. 자동차 사용시에는 통속비닐을 제거 하신후 하트모양을 열고 닫으며 향 조절을 하십시오. 동봉된 받침반을 이용해서 뒷 좌석위 공간에 두시면 최상급자동차 이미지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사용후

100% 자연 알갱이를 버리지 마시고 배게속에 넣어 사용하시면 난초, 솔, 국화, 모과 및 박하 등의 21가지 상감향이 편안하고 아늑한 취침을 도와드립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 예금주 : 김도현